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과거 민주화 투쟁할때 하루 10번 넘게 불렀지만 가사 어디에도 중복 내용은 없다. 제창되어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시켜 5·18을 이념으로 가두고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

정의화 국회의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이고 광주정신은 반독재 투쟁을 한 민주정신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임을 김일성인 것처럼 왜곡, 국민통합 저해하는 박승춘 보훈처장 경질해야

김무성·문재인 나란히 제창... 최경환·박승춘 입 다문채 듣기만

5·18 35주년 기념식장에 올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 문제를 놓고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 묘지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따로따로 열리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도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놓고 정부를 성토하는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국립 5·18 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새누리당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합창이 시작되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으로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함께 기립했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듣기만 하며 '제창 불허'라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이행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정현 최고위원,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대변인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태극기를 흔들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박영준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김무성 "어디도 중복 내용 없어"
하태경 "보훈처장 경질해야"
여당내에서도 정부 성토 목소리
합창·제창 두개로 갈라진 기념식

사무처 전 간부와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어 "내가 생각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이고, 광주정신은 반독재투쟁을 한 민주정신이다. 그리고 광주정신은 인권과 평화의 정신"이라며 "광주정신을 국민을 대통합하는 통합의 정신, 상생의 정신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행사를 마치고 묘역을 돈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에서 악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제가 민주화투쟁을 할 때 하루에 10번 넘게 부른 노래인데 가사 그 어디에도 중복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보훈처와 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시켜서 5·18을 이념적으로 가두고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면서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경질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중복 덧씌우기에 보훈처장이

앞장서는 것은 용서하기 힘들다"면서 "보훈처장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위 현장의 노래로 나오다보니 불법 폭력의 이미지로 연상하는 국민들이 있다"면서 "보훈처가 이런 부정적 인식에 편승해 중복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임을 위한 행진곡이 '중복노래'라고 한다면 5·18 행사에서 부르지 말아야지, 합창을 하고 따라 부른다는 보훈처의 논리는 모순"이라며 "보훈처장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훈처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는 등 5·18에 대한 왜곡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며 "국민통합과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8일 오전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원작자들이 일본 '우타고에' 일어서라 합창단'과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만식·김선출·김은경·전용호·김종률씨. /최현배기자 choi@

1982년 광주 황석영 집에 모였던 그들 33년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다시 부른다

제작·녹음 참여 5명 한무대

"사~랑도 명~에도 이름도 남김 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남겨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중년 5명의 목소리가 빛속을 뚫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서슬퍼런 시절, 소리가 새어나갈까 균용 담으로 창문을 가린 채 불렀던 33년 전과 달리, '누가 못 부르게 하나'며 항의라도 하듯 5명의 중년 남자는 18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크게 소리내 불렀다.

작곡가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을 비롯,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녹음에 참여한 광주지역 대학 연극반·탈춤반 출신 등으로 구성된 '광대' 멤버들이 33년 만에 한 무대에 섰다.

김은경 (사)전북겨레하나 대표와 쟁과리, 징 등 타악기 연주를 맡았던 윤만식 (사)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전용호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김선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반조성팀장 등이다.

이들은 33년 전인 1982년 5월, 광주시 북구 운암

동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앞 국악당 터에 있던 소설가 황석영씨의 자택 2층 방에 모였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숨진 윤상원씨와 윤씨 후배로 들불야학을 이끌다 1979년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을 담은 노래곡을 제작하기로 결의했다. 이 때 만들어진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당시 노래곡 '넋풀어-빛의 결혼식'에 삽입된 10여곡의 노래 중 마지막 곡으로 쓰였다.

김종률 사무처장은 지난 2013년 '5·18 인권상 시상식 축하기념 콘서트' 이후 33년 전 주인공들이 무대에 나란히 선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원년 멤버들이 33년 만에 한 무대에 올랐지만 그때와 다른 호흡을 보여줬다"면서 "이 노래로 35주년 기념식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소설가 황석영, 광주문화방송 프로듀서였던 오창규, 임영희·이훈우씨 등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겠다"는 뜻을 행사위 측에 전달해왔다.

민중가수 정용주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 일본 반전단체 '우타고에'의 '일어서라 합창단' 18명이 이들과 함께 제창, 의미를 더했다. 이 합창단은 1997년부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자비로 참석해오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월창작가요제 스트릿건즈 '꽃이 저서야 봄인 줄 알았네' 대상

제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스트릿건즈(경기 김포)의 '꽃이 저서야 봄인 줄 알았네'가 대상을 차지했다.

오월가요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광주정신의 전국화를 위해 열렸다.

대상에게는 광주시장상과 트로피, 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시상됐다. 스트릿건즈는 50년대 락커 빌리를 재해석해 삶을 연주하는 밴드로, 현재의 삶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즐겨라는 생각을 노래했다.

금상은 우애와 평화의 삶을 다짐하고 희망을 담은 중년시대(서울)의 '다시 부르는 노래'가 받았다.

은상은 대기업 체인점으로 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비애를 양장점 주인의 마음으로 노래한 바야흐로 (경기 안양)의 '양장점'이, 동상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지와 의로움을 기린 김은진(광주)의 '바람언덕(내게 오는 길)'이 수상했다.

광주시는 본선 입상 곡은 음반과 온라인 음원으로 들을 수도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금남로 민주광장 앞 특별무대에서 열린 오월가요제 본선에는 모두 547곡 중 1, 2차의 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10개 팀이 열린 경연을 펼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창사 63주년 국립목포대학교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5년간 180억)
-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CK-1)선정(5년간 175억)
-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5년간 447억)
- 교육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4년간 100억)
- 교육부 인문한국(HK)사업 선정(10년간 95억)
- 고용노동부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5년간 45억)